

팔레스타인에 무승부 '쇼크' 흥명보호, 오만전 '오만' 버려야

내일 21년 전 1-3 굴욕 안긴 오만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 위기의 흥명보 감독, 전열에 변화 줄 듯...최전방 오세훈 가능성

21년 전 한국 축구에 '쇼크'를 줬던 오만을 흥명 보호가 '첫 승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을 치른다.

흥명보호는 출발 첫 경기이기도 했던 1차전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0-0 무승부에 그쳐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터라 이번 오만 원정에서 반드시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

오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76위로 한국(23위)보다 53계단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한국, 요르단과 함께 B조 2위권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와 원정 1차전에서 0-1로 석패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전방의 모하메드 알가프리, 오른쪽의 이삼 알사브리, 왼쪽의 압둘라흐만 알무사이프리 등 스피드와 발차기를 겸비한 공격진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선수들 대부분이 오만 리그에서 뛰고 있어 조직력도 좋다.

체코를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8강으로 이끈 아로슬라프 실하비 감독이 지난 2월 오만 지휘봉을 잡은 뒤 3승 1무 1패를 거두는 등 최근 흐름도 상승세다.

'중원의 핵' 미드필더 아르샤드 알알라위와 이라크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2차전에서 뛸 수 없는 건 한국에 호재다.

오만은 한국 축구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긴 경험도 있다.

한국은 2003년 10월에 열린 2004 중국 아시안컵

최종예선 오만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패한 바 있다. 바로 '오만 쇼크'라는 이름으로 한국 축구사에 기록된 경기다.

21년 전 대표팀과 현재 대표팀의 흐름은, 묘하게 닮아있다.

당시 한국은 오만과의 경기 전 베트남 원정에서 0-1로 충격패하는 등 흐름이 좋지 못했다. 이는 베트남에 당한 44년 만의 패배였다.

흥명보호 역시 약체를 상대로 충격적인 결과를 낸 뒤 오만을 만난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아시안컵 본선행에 낙관적이었던 당시 대표팀보다 현 대표팀의 처지가 더 궁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 축구는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하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다. 논란 속에 선임된 흥 감독을 향한 경질 여론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흥 감독은 기존 선발진 대부분을 유지한 채 내쫓던 팔레스타인전과는 다르게 전열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자리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주민규(울산)가 선발로 나섰다. 이번엔 오세훈(마치다)이 선발로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은 주민규보다 넓은 활동 반경과 기민한 움직임으로 팔레스타인전 후반에 한국 공격진이 활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했다.

또 팔레스타인전에서 몇 차례 실수한 베테랑 김영권(울산) 대신 다른 센터백인 김민재(원전)의 파트너로 나설 전망이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흥명보 감독이 알 시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권을 대체할 후보로는 몸싸움에 능한 정승현(알와슬), 지능적인 수비가 강점인 조유민(사르자), 유럽파 기대주 이한범(미트윌란) 등이 있다.

한국 축구에 오만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흥 감독에게만큼은 그렇지 않다.

흥 감독에게 오만은 '런던 동메달 신화'의 첫 장

이다.

흥 감독은 이번 원정 기간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알 시브 스타디움에서 2012년 2월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썼다.

당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고 런던 올림픽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에서 오만을

3-0으로 격파, 런던행을 조기에 확정하고 선수들로부터 '행가래'를 받았다.

그해 여름, 올림픽 대표팀은 런던에서 '동메달 신화'를 작성한다.

흥 감독이 오만에서 다시 한번 시원한 승리를 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U-20 여자축구, 강호 독일 꺾고 월드컵 16강 진출

1-0 승...전반 박수정 결승골

한국이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잡는 이변을 쓰면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수정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8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메트로폴리타노 데 테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독일을 1-0으로 꺾었다.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로 패하고,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와 득점 없이 비긴 한국은 3위(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별리그를 마쳐 최종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4개국 출전한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2위와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올라 우승을 다툰다.

한국보다 성적이 좋은 A조 3위 카메룬(승점 4·골득실 +1), B조 3위 캐나다(승점 4·골득실 +5)가 16강행을 확정할 가운데 우리나라는 C, F조 3위 팀과 남은 2장의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독일전 직후 열린 C조 경기에서 3위 팀 파라과이(1승 2패·승점 3)가 미국에 0-7로 크게 패해 승점이 3에 머무르면서 F조 결과와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도 16강행 티켓이 돌아갔다.

D조 최강으로 평가받은 독일은 베네수엘라전(5-2), 나이지리아전(3-1)까지 2연승을 거뒀으나 우리나라에 일격을 당해 싹쓸이했다.

독일(골득실 +4)과 최종전에서 베네수엘라를 3-0으로 격파한 나이지리아(골득실 +2·이상 2



득점 후 기뻐하는 선수들. /연합뉴스

승 1패·승점 6)는 조 1·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박수정 감독 체제로 세계 무대에 도전한 우리나라는 16개국 체제로 진행된 2014 캐나다 대회(8강 진출)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한국은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된 독일이 수비진을 전방까지 끌어올린 틈을 타 초반부터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다.

전반 22분 이 같은 전략이 결실을 봤다. 공격수 전유경이 후반으로 내려와 우서빈(이상 위덕대)이 찬 골킥을 전방으로 띄워줬다.

이를 받아낸 박수정(울산과학대)에게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가 찾아왔고, 박수정이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터진 한국의 첫 골이었다.

기선을 제압당한 독일은 후반 들어 공세를 퍼부으며 만회 골을 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육탄 방어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에 실패해 고개를 떨궜다.

경기 후 박수정 감독은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뛰었다"며 "독일이 잘하는 걸 막고자 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결승 골을 터뜨린 박수정은 "승점이 꼭 필요한 경기에서 공격수로서 득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독일의 카트린 페더 감독은 "상대가 열심히 했고,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우리가 정교하지 못했고, 몇 차례 실수도 했다"며 "후반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났다.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초·중·고 대상 레슨

시교육감배 대회서 시범경기도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대회가 7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총 85개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 우승은 남자 고등부 전자공고, 여자 고등부 송원여상, 남자 중등부 금호중, 여자 중등부 효

광중, 남자 초등부 수완초가 차지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은 이날 시범 경기에 이어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브, 리시브 등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진야 기자 jinggi@kwangju.co.kr

도경동·전하영, 펜싱 국대 선발대회 우승

남·여 사브르 개인전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메달리스트인 도경동(대구시펜싱협회)과 전하영(서울특별시)이 올림픽 이후 열린 2개 국내대회에서 나란히 개인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도경동은 8일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남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하한솔(성남시청)을 15-7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도경동은 7월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남자 사브르 단체전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린 기대주다.

올림픽 당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후보 선수로 개인전에 나서지 못하고 단체전에도 준결승까지 출전하지 않은 그는 헝가리와의 결승전 7라운드에 전격 교체 투입돼 5-0 완승을 거두며 승리의 기운을 한국 쪽으로 가져왔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이자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멤버인 박상원(대전광역시



도경동, 전하영. (청)은 3위에 올랐고,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위, 올림픽 2관왕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은 10위에 자리했다. 여자 사브르에서는 파리 올림픽 때 한국의 사상 첫 단체전 결승 진출과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던 전하영이 우승했다. 이날 결승에서 김도희(인천중구청)를 15-10으로 꺾은 전하영은 대통령배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피아오르다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